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6년 1월 24일(주일) 제1084호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있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준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산상수훈 말씀, 신앙의 선배 재조명, 감동적 사연 풍성
40일 새벽기도회 끝났지만 주중새벽기도회는 계속된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어제(23일) 끝났다. 지난해 12월 14일부터 1월 23일까지 국내 10개 캠퍼스, 30개 해외비전교회, 기도처 등지에서 일제히 진행된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풍성한 은혜 속에 대장정을 마쳤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예수님을 바

로 보여주는 사람들’을 주제로 이재훈 담임목사가 산상수훈 말씀을 선포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의 본을 보여준 믿음의 선배들도 재조명했다. 바보의사 장기려 박사,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 강화도와 주문도 복음화를 주도한 종순일 목사, 참의사 문창모 박

사, 나환자의 아버지 오방 최흥종 목사, 증도 주민 90%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초석이 된 문준경 전도사 등 34명의 신앙 선배들이 소개됐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참가한 성도들의 면면도 다양했다. 설교노트를 쓰는 8살 박시원 어린이(수원 온누리교회), 도심 속에서 새벽기도회를 하루를 시작하는 갈렙 홀리스타 청년들, 칠십 평생 처음 새벽기도회에 나온 공해룡 성도(강동 온누리교회), 중국 산골마을에서 그토록 짝사랑하던 온누리교회에 오게

된 허문자 성도(온누리M센터), 암 투병 중 새벽기도를 통해 힘을 얻은 박영숙 집사(남양주 온누리교회), 최연소 비올리스트로 새벽기도회를 섬긴 16살 이성은 학생(서빙고 온누리교회) 등이 있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끝났지만 새벽기도회는 계속된다. 서빙고와 양재 5시와 6시 20분, 부천과 수원, 남양주, 인천, 양지 5시 20분, 대전 5시 25분, 강동 6시 20분에 새벽기도회가 열린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일대일 양육자반 과정 변경

15주 과정, 큐티 베이직 수료자만 신청 가능

일대일 양육자반 과정이 변경된다. 16주에서 15주로 변경되고, 큐티 베이직 수료자만 신청할 수 있다. 올해 8월 수료자까지는 양육자반 과정을 마치기 전까지 큐티 베이직을 수료해야 한다. 일대일 양육자를 더 잘 훈련시키기 위해 양육실습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한 차례 하던 것을 두 차례로 늘렸다. 양육실습은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주제로 진행된다.

일대일 양육자반은 100% 출석과 과제물, 간증문을 제출해야 수료할 수 있다.

앞으로 일대일 양육자반 과정은 15주 동안 오리엔테이션, 예수 그리스도(1~4과), 구원의 확신, 양육실습(1,2), 하나님의 속성,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한 삶, 시험을 이기는 삶, 순종하는 삶, 사역하는 삶, 일대일 양육법을 주제로 진행된다. / 김미림 기자

목회사관학교 ‘예수를 위한 바보들’

2월 1~5일까지 ... 마이클 프로스트 초청

2016 목회사관학교가 2월 1일부터 5일까지 열린다. 온누리교회 목회자(전임, 파트) 330명이 참석한다. 주제는 ‘예수를 위한 바보들’이다. 그룹워크숍, 조별콘서트, 아웃팅(등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2월 1일에는 목회사관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목회자 일일 공개세미나 ‘세상을 놀라게 하라!’가 개최된

다. 선교학자 마이클 프로스트 교수가 ‘선교적 크리스천의 5가지 습관’을 주제로 강의한다. 목회자 일일 공개세미나에는 농어촌목회자, 신학생 등이 참가한다. 회비는 무료다. 등록은 온라인(www.onnuri.org)으로 하면 된다.

선교학자 마이클 프로스트 교수는 호주 시드니의 모얼링(Morning)신학대학 부총장이다.

/ 김미림 기자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만난 사람들

최연소 비올리스트 성은이와 가족들

“비올라를 연주하는 것은 레슬링 시합을 하는 것과 같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비올리스트 윌리엄 프리모즈의 말이다. 그의 말처럼 비올라 연주는 체력적으로 대단히 힘들다. 그 힘든 비올라 연주를 올해 열여섯 살 된 소녀가 하고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올해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 이성은 학생이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비올리스트로 섬기고 있다. 열심히 섬길 수밖에 없었다는 소녀의 고백이다.

2015년 11월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다. 어릴 적부터 예술고등학교에 가고 싶었던 성은이가 지난해 11월 예술고등학교 입시에 당당하게 합격했다.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20만 원짜리 악기를 빌려 시작한 꿈이었다. 아무리 어려워도 성은이는 악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형편이 넉넉지 못해 성은이가 막연한 꿈만 꾸고 있었어요.”

성은이 엄마 전경화 성도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 있다. 성은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학교에 입학하지 못할까봐 늘 노심초사했었다. 바이올린을 배우던 성은이에게 지인이 악기를 비올라로 바꿔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했다. 성은이의 신체조건이 바이올린보다 비올라가 더 잘 맞다는 것이 이유였다. 비올라 연주자는 손과 팔, 턱, 어깨로 바이올린보다 큰 악기를 고정해야 한다. 그래서 신체

적 부담이 더 크다. 성은이의 악기를 향한 집념은 대단했다. 더 어렵고 힘들지만 자신에게 더 잘 맞다는 말에 악기를 바이올린에서 비올라로 바꿨다.

예술고등학교 입시준비는 혹독했다. 입시까지 고작 3개월 남았었다. 학원비와 악기를 구하는 것도 문제였다. 그 긴박한 와중에도 전경화 성도는 두 아이들과 함께 새벽기도회 자리를 지켰다.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과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위기 극복, 아버지 회심, 성은이의 꿈까지

기도의 열매가 맺힌 걸까. 성은이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술고등학교 입학에 성공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가정이 깨질 것 같은 위기도 있었고, 성은



최연소 비올리스트 이성은(왼쪽 두번째)양과 가족들.

이의 학비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하나 남께서 그 위기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셨죠.”

가정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었다. 엄마, 성은이,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된 막내 종명이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부르짖은 기도가 응답됐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회심이 감사했다. 교회에 잘 나오지 않던 아버지 이승주 성도가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성은이와 종명이 3년 전부터 해오던 기도제목이 응답되었다.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아버지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뿐만 아니라 성은이가 최연소 비올리스트로 섬기게 되었다. 성인 연주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아버지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은이의 꿈까지 이루어졌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만난 아버지 이승주 성도는 이렇게 고백했다.

“그동안의 방황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로운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새벽기도회를 통해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예수님을 바로 보여준 신앙 선배들을 찾아서 6

문준경 전도사와 증도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는 대한민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주민 90%가 기독교인이다. 이 놀라운 사실 뒤에는 한 해에 고무신 아홉 켤레를 갈아 신으며 복음을 전한 문준경 전도사의 헌신이 있다. 그녀는 증도에만 11개, 신안군 전체에 100여 개의 교회를 세웠다. 증도에서만 목회자 151명이 배출됐다.



문준경 전도사(사진)는 1908년 17살에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로 시집을 갔다. 남편 얼굴조차 모르고 한 결혼생활은 행복할 수 없었다.

결혼 첫날 소박을 맞았다. 남편이 소실이 있는 목포로 떠나버렸다. 그 힘든 결혼생활에도 한 줄기 빛이 있었다. 시부모의 며느리 사랑이 지극했다.

시아버지는 문준경 전도사에게 한글을 가르쳐 줬다. 시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받은 그녀는 며느리 역할은 물론이고 남편 역할까지 해냈다. 억척스럽게 살았다. 그녀를 많이 아끼던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더 이상 증도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다. 시아버지의 3년상을 치르고 목포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결혼한 지 20년만의 일이다.

목포에서 생활하던 중 이웃의 권유로 목포 북교동교회에 나갔다. 그 교회에서 이성봉 목사를 만났다. 늦은 나이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녀의 신앙은 누구보다 뜨거웠다. 1931년에는 경성성서학원(현 서울신학대학교)에 입학했다. 당시에는 40살이 넘는 결혼한 여자는 전도부인 역할에 전념할 수 없었다. 청강생 신분으로 학교를 다녀야 했다. 후에 이성봉 목사의 신원보증으로 정식 신학생이 되었다.

문 전도사는 1933년 증도로 돌아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문 전도사의 귀향 소식을 들은 남편의 큰형이 교회 부지를 마련해줬다. 그렇게 세워진 증동리교회를 거점으로 매일같이 전도를 했다. 굶은 날씨에도 뚝단배를 타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남들은 한 해에 한 켤레 신은 고무신을 문 전도사는 한 해에 아홉 켤레나 갈아 신었다.

그녀는 찬양에 은사가 있었다. 그녀가 찬양을 하면 수백 명이 물려들었다. 낮이 빠지게 구경했다. 찬양이 끝나면 복음을 전했다. 이것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를 표현한 동판

이 그녀의 전도방법이었다. 당시 신안군에서 문준경 전도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1950년 10월 5일, 미처 후퇴하지 못한 북한군이 증도에 나타났다. 평소 문준경 전도사를 눈엣가시로 여기던 북한군이 그녀를 죽창으로 찌르고 몽둥이로 때리면서 모래사장으로 끌고 갔다. 그녀의 죄목은 ‘새끼를 많이 낳 씨 암탉’이었다. 죽창에 찔리고 군홧발에 차이면서 문준경 전도사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녀는 “주여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라는 유언을 남기고 순교했다.

문준경 전도사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증도를 방문했다. 문준경 전도사가 매일 올라 기도했던 기도동산,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관, 순교지를 방문했다. 그녀가 매일 전도하러 다닌 노두길도 걸었다.

증도 중앙을 관통하는 문준경길 178번지에

‘증동리교회’가 있다. 그녀가 매일 새벽에 치던 종의 남아있다. 증동리교회 관사들은 ‘엄마가 치던 종’이라고 불리는 그 종을 매일 새벽 치고 있다. 증동리교회 뒷산으로 20여 분 올라가면 ‘기도바위’가 나온다. 기도바위에서 증도 ‘천년의 숲’을 바라보면 한반도 지형과 모습이 똑같다. 문 전도사는 천년의 숲을 바라보며 한반도를 위해 기도했다고 한다.

증동리교회 앞에서 이정표를 따라 5분정도 가면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관’이 있다. 그녀의 출생부터 순교까지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기념관 건너 해안도로에 그녀의 묘지가 있다. 증도에 가면 문준경 전도사가 찬양하는 모습, 노두길을 오가는 모습, 뚝단배를 탄 모습, 기도하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그리스도의 사람들

사도행전 11:19~26

“안디옥교회처럼 언어와 민족과 문화가 달라도 포용하고,
복음을 전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 흩어진 성도들로 인해 안디옥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당시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팔레스타인 북쪽지역에 있지만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대다수 도시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은 어느 시대이건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양한 민족과 인종들이 모인 국제교역 도시였기 때문에 선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율법적인 문화에 사로잡혀 이방인과 교제하기를 꺼렸습니다. 그래서 선교 중심적 교회가 되기는 어려웠습니다. 안디옥교회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세계선교의 중심지가 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안디옥교회가 세계선교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 성도들, 형제들,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과 제자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티아누스’입니다. 당시 유행했던 언어적 문화가 있었습니다. 헤롯을 지지하고, 헤롯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사람들을 ‘헤로디아누스’라고 불렸습니다. 가이사의 추종자들은 ‘가이사이누스’라고 불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크리티아누스’라고 불렸습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얼마나 나타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불리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 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알 수 있

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켜갔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19절).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기대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충만함과 기적이 나타났지만 유대 땅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의 사역으로 복음이 사마리아로 확산되고 있었지만 온 교회적인 확산이 일어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때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 핍박이 성도들을 흩어지게 했고, 복음이 확산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것입니다.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 흩어져 있을 때에도 동일한 정체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은 정체성과 사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난을 피해서 흩어졌지만 사명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섬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적 새 생명은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믿음이 달라지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병들었을 때도 신앙은 동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새 생명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성도들이 일시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방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경제적인 기반을 닦아야 하고, 앞일을 개척해야 되는 엄청난 도전 앞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 안에 진정한 영적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단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흩어졌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

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왜 흩어지게 되었는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확산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나 고난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섭리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목적과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그들의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안디옥에 세계선교의 중심지가 되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파

둘째, 소수의 제자들이 인종을 넘어서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20~21절).

흩어진 제자들이 계속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면 선교의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몇 사람입니다.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에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언제 변화된 사람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일 수도 있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 때 충만함을 받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 믿게 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리스 문화와 언어에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만의 교회에서 이방인을 향한 교회로 변화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한 교회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소수

의 성도들이 세계선교의 흐름과 패러다임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언제나 유명한 지도자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성도들, 선교에 헌신하고 복음전도에 헌신한 소수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뤄졌습니다.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다른 인종,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품지 않는다면 안디옥까지 갔지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 바로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입니다. 그들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곳에 유대인들보다 그리스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데 같은 언어, 같은 인종, 같은 문화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전도대상자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창의적인 몇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주의 손이 함께하심으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안디옥교회의 출현은 어느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소수 무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카리스마와 양육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무명의 성도들의 개척과 헌신에 의해서 이뤄졌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는 그곳에 지도자를 파송했습니다.

셋째,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영적성장을 위해서 서로를 세워줬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는 지도자를 안디옥으로 파송했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뵈었습니다(22~24절).

〈13면에 계속〉

불어권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열려 있는 선교지인 동시에 이슬람과의 영적격전지 선교사 파송 비율 7%, 한국인 선교사 2% 미만 ‘일꾼 부족’

신년기획_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선교지

1. 이주민교회와 이주민선교
2. 난민사역
3. 문서선교
4. 불어권 아프리카



최윤 집사
(프랑스어 예배 팀장)

불어권(La francophonie)은 지구 위에 매우 복잡한 모습으로 펼쳐져 있는 광대한 지역을 의미한다. 불어권이란 용어는 1880년 프랑스 지리학자가 “세계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전체”를 지칭하기 위해 만든 신조어였으나 곧 사장되었다. 불어권 아프리카의 식민통치 독립 이후, 1962년 세네갈의 시인이자 대통령이었던 상고르가 “프랑스어에 내재한 인류의 보편적 문명과 이상의 유산을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재정의했다. 그 이후부터 문화적, 정치적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불어권이라고 하면 프랑스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권역이나 그러한 조직을 지칭한다. 프랑스어권 국제기구(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 OIF)에 참가하고 있는 나라, 그들의 정부 혹은 구조를 지칭한다. 2015년 위키피디아(온라인백과사전) 자료에 의하면 OIF는 육대주에 걸쳐 있는 57개국을 아우르며, 20개국을 참관국으로 갖고 있는 국제조직이다.

프랑스어는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다. 전 세계 인구 약 4~6%가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다. OIF 중 절반이 조금 안 되는 나라(24개국)가 아프리카에 포진되어 있다. 2050년이 되면 이 인구가 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서 85%는 인구 증가율이 높은 아프리카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어권하면 유럽의 프

랑스나 벨기에, 스위스보다 북서부 아프리카가 떠오르는 이유이다.

알제리 태생의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뮈는 “프랑스어는 나의 조국”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것은 아프리카에 사는 불어권 사람들은 동의하기 어려운 이야기다. 대부분의 불어권 아프리카인들에게 프랑스어는 필박받고 지배당한 자들의 상처가 각인된 언어이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의 영적 침체기 그리고 상처

세계 영토의 20%를 차지하는 아프리카 대륙은 노예무역과 오랜 식민지배, 분쟁과 내전, 빈부격차와 절대적 빈곤, 예측불허하며 상존적인 폭력, 풍토병과 미증유의 질병에 허덕이는 나라로 생각된다. 이슬람 세력의 공격적인 남하로 영적인 격전지가 되어버린 속수무책의 거대한 대륙이다. 이 땅을 하나님은 일찍이 사랑하셨다.

초대교회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다른 어떤 대륙에 앞서 북부 아프리카로 보내셨다. 그래서 상당히 일찍부터 복음화가 되었다. 사도 마가가 이집트에 최초로 복음을 전했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나라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행 8장). 그 밖에도 북부 아프리카의 베르베르족, 누비아 지역(이집트 남부의 니일강 유역, 수단 북부에 있는 지역) 등지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그 흔적은 지금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현대 종교사는 아프리카 지역의 신학자들이었던 오리게네스, 아우구스티누스,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 키릴로스, 터툴리아누스를 기억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프리카의 무수한 토착종교와 그리스도교가 섞이고, 또 이단의 영향으로 약화되어가던 7세기 무렵이었다. 이슬람 세력의 아랍으로부터 침략을 받으면서 아프리카의 영적인 와해가 시작되었다. 그때부터 긴 영적 침체기에 들어갔다. 필자는 이 짧은 글에서 아프리카 땅에 드리운 기독교 침묵의 시간을 요약할 수는 없지만, 하나같이

불어권은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공용어로, 제2의 언어로, 위기의 언어로 쓰는 나라를 의미한다. 아프리카에 가장 많다. 그 지역을 ‘불어권 아프리카’라고 지칭한다. 과거 식민지와 연관이 깊다. 불어권 아프리카는 하나님이 열어 주신 지역이다. 전체 인구 반 이상이 이슬람화 되어가는 영적 격전지이기도 하다. 불어권 아프리카 24개국 중 15개국에서 선교사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이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지만 바로 지금이 복음을 전할 적기다. 그곳에 가야한다.

이 아랍권과 서구권 사이에서 아프리카 대륙이 포획당한 슬픈 기억의 점철이라 말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리적 양상들은 지난 시간 아프리카 땅이 겪은 상처와 근원의 중요한 면면을 설명해준다. 불어권 아프리카가 밀집해있는 서부 아프리카 나라의 수도는 대개 해안가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나라들의 해양업이 특별히 발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8세기부터 시작된 아랍인들의 아프리카 노예 거래에 이어, 14세기 이후 서구 노예 거래가 가세하면서 노예선들이 해안가 도시들을 발전시켰다. 서부 아프리카 대부분의 수도들이 해안가에 자리잡은 이유가 바로 그 흔적이다. 또한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직선으로 그려진 인위적 국경이 눈에 띈다. 그것은 19세기 아프리카 식민지 분할이 현지의 문화적, 정치적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구 열강들에 의해 강제로 나뉘었다는 증거다. 이 부자연스러운 직선의 국경들은 이 대륙에서 일어난 혹은 잠재되어 있는 많은 분쟁과 갈등의 골을 반영하고 있다.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가 어려운 이유

아프리카에 불어권 국가들이 많다. 52.8%를 차지한다.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사 파송 비율은 7%에 불과하다. 한국인 선교사 2% 미만이 불어권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다.

아프리카, 특히 사하라 이남지역 대부분의 나라들이 식민통치에서 독립한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장 활발하게 복음화 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화의 물결에서 제외되었다. 이것이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의 현실이다. 여러 원인들이 지적되었다. 물리적인 문제인 직항노선의 부재, 먼 거리, 고비용 등의 원인이 아니었다. 심리적 장애 요인들, 전쟁, 내전, 이슬람 무장단체들의 불시 공격으로 인한 실제적 위험, 선교사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잠식하는 자녀교육의 어려움, 다양한 풍토병,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10/40장의 선교(불교, 이슬람,

힌두교 국가들이 포진해있는 위도 10~40도 사이의 선교지역)목표 지역에서도 대부분의 불어권 아프리카 나라들이 제외되어 있었다. 프랑스어 습득이라는 난제 등도 고정적으로 언급되는 선교 저해 요인들이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체계적인 분석이 요청되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이러한 원인들은 이 지역 선교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매뉴얼 목록을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은 그 지역 선교가 어려운 이유는 극복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다소간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열거된 선교 장애요인들은 불어권 선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내면에 장애요인들이 몇 가지 이미지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멀게 느껴질 수도 있다.

불어권 아프리카는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다. 필자는 그 대륙을 더 이상 낯선 곳으로 바라보지 말도록 간청한다. 아프리카, 특히 불어권 아프리카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선교를 수월하게 하는 유비쿼터스적인 삶을 허락받은 정보의 시대에 복음에 눈과 귀가 닫힌 방대한 지역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불어권 아프리카는 영적격전지

불어권 아프리카 나라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땅, 그 민족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과 같은 의미다. 주님은 분명히 “그리고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마 24:14),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 28:19)라고 말씀하셨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계 열방 복음화를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불어권 아프리카도 포함된다. 불어권 아프리카 미복음자들,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는 종족이 서부 아프리카 15개 국가에만 한정해도 약 557 종족이나 된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알게 해주

선교의 현실



시고, 마음을 주시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열망하며 기다리는 자녀들이 가야할 곳이 바로 불어권 아프리카다. 여러 가지 역사적, 문화적 신호들이 바로 지금이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를 할 때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불어권 아프리카가 깨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꾼이 부족하다. 불어권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10년 전에는 약 8,000여 명이었다. 그중에서 92.5%가 영어권에서 온 선교사였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인 한국에서 온 선교사는 현재 200명을 겨우 상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수의 헌신자를 보내 불어권 아프리카 1,300여 종족 중 60%를 복음화 시켰다.

불어권 아프리카는 하나님이 열어놓은 지역이다. 불어권 아프리카 전체 인구 반 이상이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다. 세네갈, 말리, 차드, 니제르 같은 나라는 인구의 90% 이상이 이슬람이다. 그런데도 불어권 아프리카 24개국 중 15개국에서 선교사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이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아랍권의 물질공세와 강제적 폭력수단을 통해 급속히 이슬람이 남하했다. 이곳은 영적격전지다. 영적격전지의 문이 열려있다. 그곳으로 우리가(복음) 들어가야 한다.

프랑스 복음화, 불어권 복음화와 직결

전 세계 역사에서 지금처럼 민족 간 이주가 폭넓게 이루어진 때가 없었다.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이동하며, 서방 인구가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불어권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랍권이던 아프리카권 불어권 인구들이 아프리카를 벗어나고자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으로 이주하고 있다. 복음화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위기이자 기회다. 이 지역 전문가 앙리 로페즈는 “큰 변화가 없다면 10년 후에는 프랑스어 사용자 중 하나가 아프리카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프랑스어 아프리카인이 유럽 전체의 소수민족으로 등장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프랑스에는 700만 명의 무슬림이 있다. 그들 중 대부분이 명목상 무슬림이다. 다민족 교회인 프랑스 교회를 백인 프랑스인들보다 숫자적으로 우세한 불어권 아프리카인들이 섬기고 있다. 불어권 아프리카 복음화가 프랑스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다. 이미 프랑스 제도권은 물론이며 문화의 중심부로 진입한 아랍권 혹은 아프리카 출신 프랑스인들은 복음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훈련받은 리더들이 아프리카 지역 복음화를 위한 일꾼으로 준비되고 있다.

프랑스는 복음주의자 2%이하인 나라다. ‘가장 복음화 되지 않는 나라’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여전히 정치, 외교, 경제, 군사적 영향력을 아프리카 및 중동 이슬람권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복음화가 불어권 전체 복음화 이슈와 직결된다.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다.

한국인 선교사를 부르신다

불어권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은 한국을 부르신다. 수세기에 걸친 착취의 역사를 통과한 현재 아프리카인들은 비록 선교사라 할지라도 서양인에 대한 상처와 내재된 반감과 불신을 저변에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양 선교사들이 즐기던 기타 연주의 찬양보다는 탐탐북 같은 토착 악기를 선호한다. 천재지변과 전란이 일어나면 일반적으로 철수하는 서양 선교사와 다르게 한국 선교사들의 목표는 그들 사이에 신뢰

를 형성했다. 고난 속 의리와 정으로 그들과 함께 했기에 그들은 더욱 한국인 선교사들을 의지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 지역에 대한 비판론과 낙관론이 교차하는 가운데 아프리카는 여러 국면에서 변모하고 있다. 높아지는 교육열과 자체적 발전에 대한 이 땅의 몸부림은 거의 모든 사회 영역에 준비된 전문인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다. 불어권 아프리카에서 총체적 선교가 더 강하게 논의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계속되는 재난과 전쟁으로 사망률이 높은 그 땅 어디를 가더라도 아이들이 많다. 이슬람 교육에 노출되기 이전에 복음화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청년 헌신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불한성경과 프랑스어 예배

최근 프랑스어와 우리말, 두 언어가 대조적으로 편집된 <불한성경>이 출간되었다. 불한성경은 프랑스어를 배우는 차세대 복음화, 해외 한인교회, 국내 불어권 이주자들에게도 쓰임 받고 있다. 무엇보다 불어권 선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역의 도구가 되고 있다. 늘 선교의 걸림돌이자 뜨거운 감자였던 프랑스어 습득 문제에서 성경에 관한 것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패트릭 존스턴은 <세계교회의 미래>에서 2050년이면 세계 기독교인의 44% 이상이 아프리카인일 것이라 추정했다. 그 숫자에 불어권 아프리카 사람들도 포함될 것이다. 큰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분명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 이 대륙의 나라들에 대해 예언하신 바 있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리라”(시 68:31).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아프리카 지

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상기하고자 한다. 은혜가 풍성하고, 모든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 그간 여러 교회에서 프랑스어 예배를 창설하고자 시도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래 지속되기 어려웠다.

온누리교회 선교분과가 불어권 서부 아프리카를 융합선교 중심지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1년의 준비기간을 거치고 2015년 1월 11일, 온누리교회 프랑스어 예배가 양재 온누리교회에 창설됐다. 고전하는 프랑스어 예배를 온누리교회에 허락한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닐까. 필자는 이것을 2011년 블레싱 사하라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주신 선물이라 생각해 본다.

프랑스어 예배가 이제 막 1주년을 맞이했다. 불어권 유럽과 아프리카 선교에 마음을 품은 예배자들이 모여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필자는 이 예배가 온누리교회와 불어권 선교에 중요한 동력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프랑스어 예배가 주님께 큰 영광으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한다.

최윤 집사는

소설가, 번역가, 서강대학교 교수
1978년 프랑스 프로방스대학교
프랑스 현대 문학박사 학위
1984년~현재 서강대학교
프랑스문화학과 교수 재직 중
1990년 대한민국 문학상 번역 부문
1992년 <회색 눈사람> 동인문학상
1994년 <하나코는 없다> 이상문학상,
대산문학상 번역상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4일, '이반젤'이라는 11살짜리 스리랑카 소년이 한국에 왔다. 그 소년은 무릎관절이 기형적으로 튀어나와 제대로 걷지 못하는 '선천성슬개골탈구'라는 병을 앓고 있었다. 그 소년이 김병순 장로(정형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판교순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완치됐다. 한창 뛰어놀 나이에 제대로 걷지 못해 위축되어 있던 소년이 새장을 탈출한 한 마리 새처럼 훨훨 날았다. 11월 28일 한국에서의 마지막 물리치료를 받고 이튿날 스리랑카로 돌아갔다. 그 소년에게서 지난해 연말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제는 목발을 안 짚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바로 보여주는 바보의사 김병순 장로

이반젤이 김병순 장로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된 데에는 보이지 않는 돕는 손길들이 있었다. NGO 더멋진세상, 송과공동체가 힘을 보탤었다. 김병순 장로의 선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선교사와 현지인 목회자와 가족들을 위해 12년째 무료로 수술 및 진료를 해주고 있다. 의료선교팀 CMN 대표장로로 섬기고 있다.

“드러내지 않고 열정으로 섬긴 선배들을 보고 배운 것뿐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묵직한 겸손이 느껴졌다. 별 것 아니라고 말하는 자체가 놀라웠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들었다.

김병순 장로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다 2004년 개인병원을 개원했다. 이유는 하나다. 대학병원에서는 자신의 뜻대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로 보였겠지만 불쌍한 사람들을 마음껏 도와주기 위해 개인병원을 고집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을 ‘선교병원’으로 세우겠다고 마음먹었다.

“2003년 당시 하 목사님이 설교에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떠나라’였어요. 7년 된 성도는 떠나라, 선교하러 떠나라, 계속 떠나라고 하시는데 안 떠나고 버틸 수가 있어야지요.”

그렇게 선교병원을 짓고, 대학병원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의료봉사를 시작했다. 그때부터 선교사, 현지인 목회자와 가족들을 위해 무료 수술을 계획했다.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아웃리치를 가면 의료시설과 환경이 열악해 단순한 골절인데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람들 모두를 진료할 수 없는 것이 무척 안타깝더라고요.”

정해진 일정과 한정된 의료기기, 부족한 봉사자가 감당하기에는 환자들이 너무 많았다. 치료받겠다고 온 사람들을 전부를 진료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치료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선교병원과 첫 무료수술

김병순 장로가 처음 의료봉사를 시작한 것은 2005년 이스라엘 아웃리치였다. 당시 ‘예루살렘 평화행진 2005’ 집회가 이스라엘에서 열렸다. 지구촌교회, 할렐루야교회도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였다. 온누리교회 성도만 2,500명 넘게 참석했다. 그 집회에 김병순 장로는 어머니와 당시 초등학생이던 둘째아들을 데리고 갔다. 의료봉사팀 일원으로 난생 처음 팔레스타인 땅을 밟았다. 장장 27시간 넘게 걸려

12년째 선교사, 현지인 목회자와 가족 무료 수술



전 세계 열악한 환경의 사람들에게 무료수술을 해주고 있는 김병순 장로.

이스라엘에 도착했다.

“팔레스타인에 가본 적 있어요? 높이 7m가 넘는 분리장벽 안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주위에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삼엄하게 경계하고 있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외부로 나갈 수도 없는 고립된 상태에서 살고 있었어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진료하다 당시 14세 소녀 ‘아마니’를 만났다. 그 소녀는 선천성 고관절 질환을 앓고 있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장애를 안고 살고 있었다. 그 현장에서는 소녀를 치료할 수가 없어 한국에 데리고 와 수술을 해줬다. 그것이 첫 무료 수술이었다.

“비자 문제로 수술하고 열흘 만에 소녀를 팔레스타인으로 보내야 했어요. 그 후에 다시 한국에 나오는 번거로움이 있긴 했지만 치료가 잘 되었어요. 벌써 11년이 지났으니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 되었겠네요.”

김병순 장로가 만난 예수

그동안 김 장로가 무료 수술을 해준 대상과 지역이 정말 다양하다. 일본, 몽골, 중국, 인도네시아, 터키 등지에서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 현지인 목회자와 그 가족들의 딱한 사연을 들으면 한국으로 데려와 무료수

술을 해줬다. 개인병원이라 원장 마음대로 한 다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다. 금전적인 부담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NGO 더멋진세상에서도 돕고, 선교사와 결연을 맺고 있는 공동체에서도 도와줍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뿐이에요.”

그의 겸손이 존경스러웠다. 훌륭했다. 김 장로를 그렇게 만든 것은 분명 신앙이었다.

그는 1998년에 예수를 만났다. 39세 늦은 나이에 기독교에 입교했다. 1년 동안 미국에서 연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 신앙심이 남달랐던 누님(현재 부친 차세대 담당 김정은 목사)의 영향으로 미국 가기 전에 온누리교회에 나오긴 했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교인도 아닌데, 하 목사님이랑 악수도 했어요.”

당시는 외환위기가 터진 직후였다. 외국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닥쳤다. 그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 받고, 힘을 얻었다.

“1997년에 환율이 1달러에 900원 정도였는데 1998년에는 2천원이 넘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폐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생활고에, 정신적 충격이 더해져 미국 생활이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제게 교회와 하나님이 크나큰 위안처가 되었죠.”

그때부터 달라졌다.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거듭났다. 귀국 후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순장도 하고, 봉사도 참 많이 했다. 정말 열심히 섬겼다. 힘든 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서 선교병원을 꿈꾸기 시작했다.

올해는 의료 봉사하러 아프리카로!

그는 인터뷰 내내 크리스천 의사들의 사명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 더 많은 선교사들을 섬기고, 그들이 힘을 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그것이 크리스천 의사들의 사명입니다.”

올해는 아프리카로 의료봉사를 갈 계획이라고 했다. 여태까지는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동남아시아로 많이 갔는데 올해는 아프리카로 간다. 거리가 멀어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아프리카에 가야겠다고 다짐했다. 최근에는 초음파 기계, 엑스레이 기계, 혈액검사기 등을 새로 구비했다. 약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웃리치 현장에서 다양한 진료를 하려는 것이다. 의료봉사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참 대단했다. 보면 볼수록 존경스러웠다. 바로 그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바보의사 김병순 장로다.

문의: 02-3215-3786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성경체질 그리고 건강 2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체질별로 분석한 연구는 영국의 신학자 알렉산더 화이트가 시작했다. 팀 라하이 목사는 기질론을 보편화시킨 인물이다. 5회에 걸쳐 성경 속 인물들을 기질론으로 풀어낸다.

소양인 바울의 불굴의 집념과 투지



류모세 선교사
(경희살롱한의원 원장,
열린다성경아카데미 대표)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나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행 19:21).

불기운을 타고난 소양인은 끓는 열정의 소유자다. 최루탄과 투석이 오가는 데모 부대의 행동대원, 탱크주익식 추진력과 돌파력의 소유자 가운데 소양인들이 많다.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이후 바울이 보여준 삶은 소양인의 특성인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잘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된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놀라운 선언을 한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제 선교사역을 정리하고 조용히 회고록이나 쓸 나이에 바울은 새로운 사역을 꿈꿨다. 선교적 소명으로 심장이 불타고 있었다. 그동안의 사역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지중해 동부권에서의 사역이었다면 이제는 라틴어를 사용하는 지중해 서부권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는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는 열정으로 지글지글 타오르고 있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 스페인은 세계의 끝이다. 결국 바울은 세계선교를 혼자서 끝내겠다는 각오였다. 바울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세계선교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중단 없이 전진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2-24).

불은 어둠을 밝힌다. 불기운을 타고난 소양인은 밝은 성격을 가진 낙천주의자다. 아무리 절망한 모임에도 소양인 한 명이 끼어 있다면 염려할 게 없다. 소양인의 밝음 앞에 맥을 못 주고 웃음보를 터뜨리게 될 테니까 말이다. 소양인은 낙천적인 성격과 함께 강한 내면의 소유자이다. 소양인의 사전에는 절망, 좌절, 포기라는 글자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들의 인생 모토는 한마디로 단순, 무식, 과격이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불굴의 의지와 도전정신은 성령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기저에 깔려있는 소양인적 기질이라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마치고 자신이 개척한 교회의 장로들과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여정은 비

장하기까지 하다. 그는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가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면서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성령님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닥칠 고난과 역경을 분명히 계시해주셨다. 성령님은 계시를 통해 바울에게 직접 알려주셨고, 두로에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가이사라의 빌립 집에 머물 때 아가보라는 예언자를 통

해서 예루살렘 전도여행이 결코 녹록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셨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여린 소음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번 예루살렘 전도여행을 성령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구나”라며 계획을 접었을 것이다. 하지만 불굴의 집념과 투지, 강인한 내면의 소유자 소양인 바울은 불도저, 탱크처럼 무조건 앞만 보고 전진하고 또 전진했다.



목회칼럼 김정희 목사(수원 온누리교회)

날마다 하나님 만나고, 계획을 실행하라!

새해를 시작한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시간은 참으로 빠르다. 예나 지금이나 시간가는 속도는 동일하지만 시간은 현대인들에게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 현대인들은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매달, 매주, 매일의 계획을 짜보지만 시간이 나를 관리하는 상황으로 바뀌기 일쑤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엡 5:16)라는 말씀으로 시간 관리를 당부한다. ‘아간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구속하다, 속량하여 다시 사다’이다. 시간을 적극적으로 구속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시간을 구속해야 할 이유는 ‘때가 악하다’라는 말에 있다. 이 시대의 풍속과 흐름이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구속해야 한다. 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지금뿐만 아

니라 앞으로도 시간은 낭비될 수밖에 없다.

2016년을 어떻게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 필자는 크리스천들의 신년계획과 시간 관리를 위한 원칙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기억해야 한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라는 시간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시간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365일, 24시간을 잘 다루려면 주어진 시간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야 한다.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방향 없이 시간에 끌려 다니게 된다.

둘째, 무엇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가야하는 방향도 없이 사는 것만큼 허무한 인생이 없다. 새해계획을 세우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크리스천이 가야하는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다. 방향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세속적으로 흘러갈 경향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일한 뒤 성취하는 기쁨을 허락하셨다. 그 성취의 기쁨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때 주어지는 부산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셋째,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이끄신다”(잠 16:9).

신년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우선순위 선정이다.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무엇을 정리할지 분명해진다. 신년계획이 아무리 그럴싸해보여도 우리의 계획에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크리스천에게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결정이 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다. 우리는 날마다 다양한 세상

의 정보 속에 노출되어 있다. 한마디로 영적 전쟁터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날마다 우리 안에 채워 넣지 않으면 육식을 분별하기 어렵다.

또한 신년계획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으려면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은 하루, 한 달, 한 해를 주님의 손을 잡고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루를 시작하셨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 모든 것이 모호한 시대에 성경은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각자에게 맞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야 한다. 날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본지에서는 새해를 맞아 12개 사역본부장에게 올해 사역계획과 방향, 포부를 듣고 있다. 이번 주는 목회기획, 회복사역본부장 이기원 목사, 가정사역본부장 이동훈 목사, 국제사역본부장 스티브차 목사를 만났다.

목회기획, 회복사역본부장-이기원 목사

“건강한 교회를 위한 목회기획, 예수님을 바로 보게하는 회복사역”



목회기획에서 하는 일이 궁금합니다.

“목회기획에서는 온누리교회의 집회, 사역, 예배 등 모든 목회일정을 조율하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목표가 정해지면 각 사역과 교회의 방향이 조화를 이루도록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라는 비전에 맞춰 낮은 곳에서 섬기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해는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비전에 맞춘 목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목회를 위한 구체적인 기획이 있습니까?

“올해 온누리교회의 목회 방향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역 중 하나가 사회선교입니다. 교회가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앞장서 섬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뤄 나갈 것입니다. 특히 청년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취업, 결혼, 주거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청년들이 비전과 정체성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윤리관과 직업의식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대 청년들의 영성을 키워줘야 합니다. 영성훈련을 통해서 성경적 윤리관과 직업의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되찾게 할 것입니다. 일회성이나 이벤트성 행사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지속적인 사역을 계획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성도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목회기획은 몇 명의 목회자와 장로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이끌어 가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함께해야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획하는 사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진행한 ‘엔젤트리’는 교회, 공동체, 성도가 함께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좋은 사역이었습니다. 올해도 성도님들이 직접 낮은 곳에 가서 예수님을 바로 보여 줄 수 있는 사역을 기획하겠습니다. 뜻이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교회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팀워크도 중요합니다. 내 사역, 우리 공동체, 소속 캠퍼스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지금의 온누리교회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 것을 주장하기 보다 함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온누리교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보하고 협력해서 사역, 공동체, 캠퍼스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사역본부를 소개해 주십시오.

“회복사역은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정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 회복시키는 사역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하트스쿨,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성도들을 위한 한마음 정신회복예배, 하나님 안에서 소명을 찾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프리덤스쿨, 옛 자아를 버리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돕는 내적치유학교, 회복사역에 관심 있는 사역자들을 위한 회복사역학교, 치유 사역자를 양성하는 치유사역자스쿨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월요치유집회, 금요회복예배 등 다양한 예배와 사역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하는 방법을 모르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복되기 원하는데 방법을 모른다면 회복사역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중점 사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는 회복사역이 큰 전환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심각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회복사역에 참여했습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아픔이 있는 사람들도 회복사역에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두 집단이 교류하면 더 큰 성장과 회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더 성숙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올해 회복사역은 ‘기쁨의 여정’을 주제로 사역할 것입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사역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일기입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에 좋은 영양분입니다.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야 질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매일 감사하면 어떤 스트레스가 와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 일기입니다. 임마누엘 일기는 “나는 너를 볼 수 있다, 나는 너를 들을 수 있다, 나는 이것이 내게 얼마나 힘든지 이해할 수 있다, 나는 너와 함께 있어 기쁘다, 나는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하나님과 교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오늘 제가 바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내 삶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일기를 쓰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OO야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너의 바쁜 삶 속에서도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쓰는 것이 임마누엘 일기입니다. 하

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하십니다. 하나님과 교류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신앙 생활을 했다면, 자기만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일기와 임마누엘 일기를 통해 하나님과 진정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류를 하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데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지난해부터 회복사역자들에게 감사일기와 임마누엘 일기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의 교육이 끝나면 전 교인이 임마누엘 일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회복사역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바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바로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각이 왜곡되어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회복사역은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벗기고, 기쁨의 용량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회복사역은 하나님을 바로 보여주는 엔진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류가 있다면 평강과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핍박 고난 속에서도 평안할 것입니다. 기쁨과 평강으로 예수님을 바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회복은 아주 가까운데 있습니다.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눈을 돌리면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회복사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가정사역본부장 이동훈 목사

“경외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부모 신앙 보고 자란 자녀”



가정사역이 무엇입니까?

“가정사역은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의 영적인 리더십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은 공동체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서고, 사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가정사역에는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젊은부부학교, 아름다운 동행, 헬로맘, 이혼자치유학교, 야베스맘(여성사별자모임) 등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가 돕는 대외협력팀과 드림팀이 있습니다. 모두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중점사역은 무엇입니까?

“올해 온누리교회 가정사역은 가정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을 제공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드림팀을 구성할 것입니다. 드림팀은 순장부부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순장부부들이 올바르게 세워지면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부부 코칭 프로그램 ‘아름다운 동행’도 활성화 시킬 것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부부가 부부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입니다. 상·하반기에 8주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출산대책포럼’도 개최할 것입니다. 출산장려프로그램입니다. 힘든 문제이지만 포기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가정사역의 주요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 훈련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가정으로 회복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젊은 부부부터 연세가 많은 부부까지 폭넓게 참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정의 모델을 제시하

고 있습니다.

‘젊은부부학교’도 있습니다. 결혼 5~10년차 부부들이 대상입니다. 결혼생활에 위기가 느껴지는 부부들은 연차와 상관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젊은부부학교의 초점은 ‘다시 떠나지는 신혼여행’입니다. 부부관계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토록 소망하던 신혼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임신을 준비 중이거나 임신부,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을 위한 ‘헬로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태교, 영유아기 자녀의 양육 방법 등을 배웁니다. ‘이혼자치유학교’는 이혼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혼자 치유학교에는 DRS(여성 이혼자 학교)와 Good Life(남성 이혼자 학교)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별한 성도들을 위로하는 야베스맘(여성사별자모임)도 있습니다. 영적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사별자와 가족들의 영적, 육적, 사회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가정

사역 대외협력팀도 있습니다. 대외협력팀은 가정사역을 원하는 다른 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에 맞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가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가정은 시편 128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시 128:1~3).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란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이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가정입니다. 가정사역본부에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국제사역본부장 스티브차 목사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위한 예배공동체”



국제사역본부를 소개해 주십시오.

온누리교회에서는 다양한 언어의 예배가 드려집니다. 몽골, 인도네시아, 러시아, 네팔, 아랍, 스리랑카,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불어 예배는 선교부에 속해 있고, 국제사역본부(이하 국제부)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예배가 있습니다. 각 언어별로 드리는 예배에는 유학생, 교포, 이민자, 한국인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국제부에서는 그들이 한국생활에 잘 정착하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하여, 본국으로 파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예배에는 다양한 외국인교포들이 찾아옵니다. 한국어교실과 활발한 소그룹 활동을 통해 고아, 노숙인, 청소년을 돕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영어예배에 방문한 많은 외국인들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어예배에는 동부이촌동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많습니다. 한국에 온 일본인들을 섬기

는 것 뿐 아니라, 러브소나타, 해외비전교회를 돕고, 특히 일본교회에 일대일 제자양육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중국어예배에는 유학생이 많습니다. 중국에서는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온 중국인 유학생을 전도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들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전도집회 ‘차이스타(CHISTA)’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국에 돌아간 유학생들과 함께 도시교회들을 개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처럼 다양한 민족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드뭅니다. 온누리교회 국제부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본국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올해 국제부의 주요사역은 무엇입니까?

“올해 국제부는 선교사와 선교지 교회를 돕

는 사역에 집중할 것입니다. 각 언어별 예배공동체마다 해당국가 교회를 돕는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제부가 선교지 교회를 도우면 현지 선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선교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선교훈련을 받은 외국인들이 자국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햇빛트리니티대학교 선교장학생들을 섬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 사회와 한국교회에 잘 적응하고, 훈련 받아 선교지로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 일대일 제자양육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일본어, 중국어, 영어 일대일 제자양육 교실 운영을 더욱 활성화 시킬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다문화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170만 명의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생활하

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한국교회를 경험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보다 가슴 아픈 것은 부푼 꿈을 안고 한국에 왔다가 상처를 입고 떠나는 외국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 이방인들을 잘 섬기라고 했습니다. 선교사의 마음가짐으로 문화의 벽을 넘어, 국제부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특히 한국어 교실을 도와주십시오. 한국어 교실은 선교의 장(長)입니다. 한국어만 가르쳐줘도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한국어 교실 봉사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외국인교의 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보기도로 동참해 주십시오. 또한 국제결혼하신 분들, 오랜 외국생활로 한국생활 적응하기 힘든 분들, 교회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국제부 예배를 소개해 주십시오. 그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대학생 리더십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열방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대학부 리더십컨퍼런스 ‘Go!’

대학부 리더십컨퍼런스 ‘Go! 믿음의 모험’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과주 제자수양관에서 개최됐다. 올해 대학부 리더십 컨퍼런스 ‘Go! 믿음의 모험’에서는 제자 훈련을 강조했다. 이재훈 담임목사, 이상준 목사, 하

형록 목사, 김승수 목사, 최성민 목사, 김건희 청년이 ‘사랑, 예수, 비전, 이웃, 복음, 열방을 위해 모험하라’를 주제로 강의했다. 매년 열리는 대학부 리더십컨퍼런스는 대학부 리더십(순장, 부순장, 사역팀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 간증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



대학부 리더십 컨퍼런스를 통해 동역자의 소중함을 느꼈다. 이번 집회에서 나는 시설팀과 찬양팀으로 섬겼다. 시설팀에서는 의자 세팅과 현장 일을 도맡았다. 예배시간에는 맨 뒤에 앉아 기도했다. 스태프로 섬기면서 밥도 빨리 먹어야 했다. 그런 데도 좋았다. 시설팀 형제들과 친해지고, 함께 찬양한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스태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기도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붉어진다.

찬양팀을 섬기면서는 가사를 외우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고백할 수 있어 행복했다. 이번 리더십 컨퍼런스는 헌신과 믿음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였다.

/ 최동룡 형제(하늘공동체, 30기)

서빙고 만남의 잔치

날짜: 1월 31일(주일) / 시간: 오후 5~7시(식사제공)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지하2층 시온홀(B2)

대상자: 2015년 11월 15일~2016년 1월 9일까지 새가족 8주 과정 수료자

S브릿지 김형경 김보위 최유경 고진호 이창한 김정진 정재욱 정영서 고현지 김진영 최병현	관악금천 김영선 이수빈 김효선 서상완 노원 최종우	마포 배덕순 서유경 이성희 서대문 손재원 박선우	우정경 권정택 김영리 민성원 장희윤 노인배 서순희 송상봉	신용산 김광희 김정옥	이호현 이혜진	이촌 박선주 이선아 백혜경 최희진 김현식 이인선	중종로 김동현 민영숙
강서 고희경	동작 서정자 김아영 박진우	성동광진 김요한 김사라	성북 박은혜 이훈우 최대건	여의도 정제니 이성수	영등포구로 양진석 노슬유	일산 최영아 박수현 이택기 민주희	특별한초대 윤지희 천혜린 조혜정 최창균

바로잡습니다

지난주 신문(1월 17일자) 5면에 게재된 내용에 ‘다락방의 만민TV, 민족복음화신문, 만민중앙소식지’는 다락방이 아닌, 만민중앙교회의 포교용 이단 문서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또한 만민중앙교회는 GCNTV라는 이단위성방송도 송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어린이·부모 하트스쿨 참가자 모집

어린이·부모 하트스쿨에서 2월 28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어린이 하트스쿨은 미술, 음악, 놀이 등을 통해 건강한 자아상을 발견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고, 부모 하트스쿨은 부모교육, 미술작업과 지원그룹의 나눔을 통해 자녀의 문제를 이해하고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하트스쿨은 3월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양재 온누리교회 IDS홀과 충성홀에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전화나 휴대폰 문자메시지(010-5415-3879),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어린이 10만원, 부모 5만원(1인 기준)이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전도콜센터가 다시 가동된다

전도요청하면 언제, 어디든지 달려간다

전도콜센터가 다시 가동된다. 전도콜센터는 지인과 가족들의 전도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성도 스스로 전도하는 것이 어렵거나 가까운 사이여서 전도의 효과를 보지 못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도콜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전문적인 전도훈련을 받은 사역자들이 맞춤 전략을 세운다. 전도사역자들이 전도대상자들을 직접 찾아가 복음을 전한다. 그동안 전도콜센터를 통해 맺힌 열매들이 풍성하다. 이단에 빠진 가족들 때문에 마음이 닫힌 아버지

가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고, 도박중독에 빠진 동생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누나의 소망이 이루어졌다.

현재 전도콜센터에는 전문사역자 25명이 사역하고 있다. 전도요청이 오면 언제, 어디든지 달려간다. 매 주일 11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GCNTV 홍보관에서 운영되고 있다.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을 하면 된다.

문의: 남진희 간사 02-3215-3637

박인숙 권사 010-2387-6626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장학위원회, 장학생 5명 모집

한동대학교 재학 중인 성도 대상

장학위원회 파란단추에서 1월 31일까지 한동대학교가 기탁한 ‘온누리교회 기탁 장학금’을 받을 장학생 5명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한동대학교에 재학 중인 성도다. 한동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성도의 부모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역팀과 공동체에서 추천을 받아도 된다. 한동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신입생은 제외다. 제출

서류는 장학금지원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추천서다.

한동대학교는 매년 온누리교회에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2명의 성도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지만, 올해부터는 5명으로 늘렸다. 한 명당 5백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된다.

문의: 02-3215-3234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시사회

1월 30일 오후 7시 서빙고 본당

탈동성애자 이야기를 다룬 다큐영화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시사회가 1월 30일 오후 7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자녀를 둔 성도와 대학청년들은 반드시 봐야 할 영화다. 김광진 감독이 만든 다큐영화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는 1년 10개월 동안 사전조사와 탈동성애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동성애자들의 삶을 조명했다.

이번 시사회는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돕고,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성애는 분명히 반대하지만, 사회선교적 관점에서 동성애자들을 품고,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사회는 이재훈 담임목사의 환영인사 및 영화소개, 영화시사, 강평 및 기도회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년단기선교사 FA 10기 모집

31일까지 신청

청년단기선교 프로그램 ‘FA(Frontier Agency)’ 10기 참가자를 1월 31일까지 모집한다. FA는 청년들이 전방개척지역에 나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선교 프로그램이다. FA 10기 파송지역은 인도네시아와 네팔이다.

훈련은 2월 19일부터 3월 12일까지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된다. 3월 27일에 대학청년부 각 공동체별로 파

송예배를 드린다. FA단기선교는 국내 합숙훈련(3주), 현장사역(6개월), 사역보고까지 합쳐 6개월 동안 진행된다.

선교지에서 전도, 언어, 공동체 훈련을 받는다. 선교에 열정이 있는 35세 이하(81년생)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소속 세례교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학청년부 예배에서 배포되는 신청서에 작성하면 된다. 지금까지 158명의 청년 단기선교사를 배출했다.

문의: 010-5015-5558

/ 김미림 기자

제1084호 | 2016년 1월 24일(주일)

■ 예수제자학교(JDS) 수료간증



나를 변화시킨 예수제자학교

/ 조영 성도(서대문공동체)

예수제자학교(JDS)에 들어오기 전에 나는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았다. 예수제자학교 강의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 회개의 눈물을 참 많이 흘렸다. ‘십자가의 도’라는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 죄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었다.

예수제자학교를 수료하고 나서 나에게 변화가 생겼다. 가장 큰 변화는 날마다 QT와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다. 나는 아침에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제자학교에 입학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QT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일찍 눈이 떠졌다. 아침마다 벌떡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QT를 했다. 이제는 일과가 되었다. 또한 중보기도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사역’이라고 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았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 간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아뢰는 기도를 하고 있다.

예수제자학교를 수료하면서 변화된 것이 또 있다. 37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내게 큰 힘과 위로

가 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에서 받은 상처로 인한 낙심과 절망이 생겼다. 5년 전에 두 아이를 출가시키고 난 이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았다. 2년 전 97세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시자 ‘이 세상에서 내 책임은 이제 다 끝났다’는 마음이 들었다. 혼자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열망만 가득해졌다. 그런 내가 달라졌다. 결혼하고 37년 동안 하나님보다 남편을 우선순위로 올려놓고 살아왔음을 깨닫고 참 많이 회개했다. ‘나의 불순종을 일찍 깨닫고, 우선순위를 바로 했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껏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강박한 남편의 마음을 주님이 조금 더 빨리 돌려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나의 성실함만을 내세워 내 힘으로 남편을 통제하고자 했던 무지함, 어리석음,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리더십으로, 영적 제사장으로서 세워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예수제자학교를 통해 홀로 설 수 있게 양육해 주셔서 이제 혼자 걸음마를 떼려 한다. 이재훈 목사님의 설교말씀처럼 예수님을 바로보고, 예수님 마음으로 이웃을 보살피며, 예수님을 세상에 바로 보여주는 예수바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 이수공동체 전도집회 간증



/ 백수정 성도

나부터 바로 서야겠다!

자녀들에게 사춘기가 찾아오면서 집안이 조용할 틈이 없었다. 아마 다른 가정도 비슷할 것이다. 나는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언성을 높이고 짜증을 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일이다. 아이들은 나를 ‘잔소리쟁이’, ‘말이 안 통하는 엄마’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와 자녀들이 언성을 높이고 싸우면 남편은 아이들에게 매를 들기도 했다. 나와 아이들 싸움이 부부싸움으로 이어질 때도 있었다. 부모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지만 쉽게 인정할 수 없었다. 교회에 가고 싶었지만 결혼을 하고 두 자녀를 키우다 보니 쉽지 않았다.

교회에 다시 다닌 지 두 달이 되었다. 언니의 도움이 컸다. 언니네 가정은 참 보기 좋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이었다. 언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귀한 선물 같은 예쁜 딸도 얻었다. 언니와 교회에 나가서 가정을 위해 기도했다. 남편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좋은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던 어느 날 언니가 이수공동체 전도집회 ‘응답

하라 3040’에 남편을 초대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했다. 두 자녀들은 참여해도 남편이 초대에 응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도 꼭 남편을 참여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언니와 나는 남편이 꼭 전도집회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주셨다. 남편이 초대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12월 12일, 온 가족이 전도집회 ‘응답하라 3040’이 열리는 숭실대학교로 향했다. 연말이라 차가 많이 막혔지만 남편과 자녀들은 불평하지 않았다. 남편과 자녀들에게 참 고마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도시락을 먹으며 준비된 공연을 보았다. 귀에 익은 가요와 찬사 찬타 팀의 공연을 보며 남편도 집회를 즐기기 시작했다. 묵묵히 집회에 참여해준 남편이 참 고마웠다.

남편과 자녀를 위해 나부터 바로 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의 생활을 돌아보고, 낮은 자세로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나의 신앙이 건강해야 가족의 신앙도 건강할 것 같다. 우리 가족을 전도집회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

■ 대학청년부 ‘The One’ 집회 간증



/ 이상원 형제(J4U공동체 대표MC)

무엇보다 하나님이 최우선

나는 J4U 공동체에서 대표MC로 섬기면서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했다. 사실 전에는 순장이나 그룹장 등 리더십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했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대표MC로 섬겨달라는 요청은 거부할 수 없었다. 지난해 9월부터 J4U 공동체 대표MC로 섬겼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The One’ 집회처럼 큰 행사를 진행할 때 미숙한 모습 때문에 지적이 많았다. 부족한 부분을 배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에 우선이 무엇이니?”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 이번 ‘The One’ 집회에서 J4U 공동체는 예배와 안대를 섬겼다. 안대팀은 빨간색 목도리로 둘렀다. 하늘 영광 버리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자는 의미였다.

‘The One’ 집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너희 손으로 흘트리지 말라”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눈으로 보기 좋은 예배, 귀로 듣기 좋은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우리

가 준비하는 모든 행사나 프로그램이 우리 눈에만 보기 좋은 것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먼저 회개해라. 회개 기도제목이 생각나지 않으면 내가 알려 주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깨달았다.

이번 ‘The One’ 집회에서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 좋았다. 사실 행사를 섬기는 리더십들은 예배를 드릴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나 올해는 예배팀으로 섬기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예배드릴 수 있었다. ‘The One’ 집회가 시작되기 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목사님들의 말씀이 일치했다.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The One’ 집회를 통해 공동체가 하나가 된 것이 귀중했다. J4U 공동체는 이번 집회를 2주 전부터 준비했다. 같은 공동체여도 숫자가 많다보니 서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었다. 각 공동체 리더십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을 것이다.

■ 회복사역 ‘하트스쿨’ 간증



/ 안창현 성도(분당A공동체)

그날 나는

웃음으로 시작한 하트스쿨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나를 밀바닥으로 몰아넣기 시작했다. 내 안에 숨어 있던 문제들이 일제히 터져 나온 것이다. 그것들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튀어나왔다. 불안, 분노, 슬픔이 터져 나왔다. 감정의 밀바닥이었다. 소화 불량과 두통, 감기 등 건강도 바닥으로 떨어졌다. 게다가 기도의 문마저 막혔다. 영적으로도 막다른 골목에 와있었다.

나의 밀바닥은 부부관계에서 폭발했다. 15년간의 결혼생활과 그보다 더 긴 시간을 종교생활을 했다. 그러나 밀천이 그리 많지 않았다. 아내는 내게 “최악의 부부관계”라고 소리쳤다. 보통 부부라며 이렇게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절규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부관계의 민낯을 보았다. 피할 수 없는 나의 밀바닥이 보였다.

나는 끈질기게 밀바닥과의 대면을 피해왔다. 나았다고, 이미 해결되었다고, 그 정도면 괜찮다고, 더한 인간도 있다고 말이다. 그리고는 얼른 예배 속으로 숨어들었다. 바쁜 사역으로, 급한 일상으로 도망쳤

다. 그런데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하트스쿨이 끝나갈 무렵, 프로그램 중 하나인 ‘매직샵’ 코너에서 분노를 팔고 싶다고 내놓았다. 나에게 있는 분노는 어릴 때 받은 수치심이 원인일 수 있다는 처방(?)이 되돌아 왔다.

그날 밤 어린 시절 나를 만날 수 있었다. 어린 나는 술 취한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두려웠다.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았다. 나는 무기력했고, 내 마음에는 수치심이 가득했다. 결국 나는 울음을 터트렸다.

다음날 이 사실을 순모임에서 털어놓았다. 눈물, 콧물로 밤벽이 되었다. 어린 나를 만난 어른인 내가 울고 있었다. 아내도 울고, 순식구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 여기서 화장지가 오갔다. 아내는 “성령님이 만지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순식구들은 나를 격려하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날 나는 수치심으로 가득한 어린 나를 놓아주었다.



권사칼럼 윤정순 권사(한강공동체)

상담사는 영적인 의사다

온누리교회 상담실은 하용조 목사님의 권유로 1999년에 개설됐다. 12명으로 시작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나다. 당시 나는 오랫동안 순장이었는데 그것이 상담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상담자와 순장의 마음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상담을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당시에는 상담에 대한 선입견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신경정신과 분야로 생각하고 반기를 꺼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상담은 굉장히 잘 맞았다. 벌써 16년째 하고 있다. 돌아켜보면 상담을 한 것은 잘한 선택이었다. 무엇보다 상담을 통해서 내적 성숙이라는 큰 유익을 얻었다. 다양한 사람들이 상담실에 찾아온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 다양한 입장에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간접적인 인생경험은 매우 유익했다. 울면서 들어왔다가 웃으며 나가는 성도를 볼 때가 가장 행복하다. 상담자로서 보람을 느낀다. 나를 상담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상담사는 상처로 인해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주님 마음을 잘 전하고 싶어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대신 마음을 전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나는 상담이 끝나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손을 잡고 기도한다.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의 맛을 보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포옹하며 기도한다. 그러면 내담자들의 마음이 안정되는 것이 느껴진다. 굳었던 얼굴이 밝아진다.

나는 상담실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똑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아흔아홉 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을 더 챙기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치유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다가가야 치유되고, 변화된다.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나는 상담을 하면서 새로운 비전이 생겼다. 4년 전 필리핀 아웃리치가 계기가 되었다. 필리핀에서 각 교회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선교센터에 갔었다. 대개 선교사님들은 하나님께 직접 부름 받고 선교에 헌신하지만 사모님과 자녀들은 부족한 준비로 순종하며 함께 떠나기도 한다. 그곳에서 십년 넘게 우울증을 앓고 있던 사모님을 상담했다. 상담을 한 그 날 회복됐다. 그 사모님이 “완전히 살아났다”고 고백하셨다. 그 일을 경험하면서 상담사는 ‘영적인 의사’라는 자부심이 생겼다.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회복된 그 마음이 얼마나 지속될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선교사 사모님을 대상으로 한 선교사역을 계획하고 있다. 그 일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다. 땅 끝엔 계신 분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싶다. 이제는 상담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야 할 때인 것 같다.

성도들이 상담실을 사랑방처럼 편하게 들렀으면 좋겠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마음이 아프면 상담실로 오면 된다. 병이 깊어지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좋다. 마음이 아프다고 느끼면 언제든지 달려오기를 바란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이빛 선교사(레바논)

언젠가는 꼭 돌아갈 그 곳

나는 2008년 2월 첫 사역지 시리아로 떠났다. 요르단에서 약 10일 동안 시차 적응을 하고 선임 선교사와 함께 육로로 시리아에 들어갔다.

아랍어 한 마디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가족은 요르단과 시리아를 오가는 국경택시에 몸을 실었다. 태어난 지 18개월 된 스라엘과 아내와 나는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생활을 시작했다.

사회주의 국가인 시리아에서 사역을 하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북한과 비슷한 체제를 가진 시리아는 곳곳에 비밀경찰과 정보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치안은 안전했지만 적은 숫자라 해도 모임을 갖는 것은 위험했다. 우리는 시리아의 사회분위기에 위축되어 하루하루를 보냈다.

2011년 봄, 심상치 않았다. ‘아랍의 봄’이라고 불린 시위가 시작된 것이다. 다행히 우리 가족은 다마스쿠스 외곽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위가 진정되리라고 여겼다.

그런데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갔다. 한번은 부활절예배를 드리기 위해 다마스쿠스 반대편에 위치한 한인교회에 가려고 택시를 뺏다가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다마스쿠스로 들어가는 모든 차량이 통제되었기 때문이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부군이 기관총을 들고 한 동네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중에 들으니 한 선교사 가정의 시위가 심한 지역 가정을 방문하다 심한 검문검색을 받았다

고 했다. 우리의 불안감은 더 커져 갔다.

한 달이 지나자 본부에서 복귀할 것을 권고하는 연락이 왔다.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귀국하게 되었다. 이후 시위는 더욱 극심해졌고 내전으로 확대되었다. 2011년 8월 30일, 시리아는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됐다. 결국 완전히 철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현지에 남은 짐을 정리하러 시리아를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계속 눈물을 흘렸다. 선교지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나를 힘들게 했다. 또 혼자서 그 많은 짐들을 정리할 생각을 하니 막막하기도 했다. 다행히 현지 동료 선교사의 도움으로 살림살이를 정리할 수 있었다.

잘 섬기겠다는 시리아 사람들을 내전 속에 남겨두고 떠나려니 자책감도 들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뿐이었다. 선교사들의 발걸음은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뿐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으로 보내실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시리아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

그동안 나는 말씀을 통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한다. 우리 가족은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서쪽으로 109km 떨어진 레바논에 살고 있다.



신앙에세이 이정환 목사(분당B공동체)

프로 VS 아마추어

야구는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유일한 스포츠다. 양재 교역자 야구팀 4년 타자로 활동하고 있을 만큼 야구를 잘하고 좋아한다. 내가 이렇게 야구를 좋아하게 된 것은 어릴 적 꿈과 희망을 선물해준 프로야구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철순, 김우열, 김봉연, 이만수...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선수들로 인해 나는 야구에 열광했고, 사랑하게 되었다.

프로야구는 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그 감동은 오랜 시간 머문다. 프로의 세계가 어디 야구뿐이겠는가? 공부도, 사업도, 연애도 프로가 있다. 프로가 존재한다는 것은 아마추어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놀라운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도 프로와 아마추어가 있다는 것이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기도를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 프로가 아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이 영적인 프로다. 프로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보여줌으로 감동을 준다. 반대로 아마추어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 실망을 준다. 어떻게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경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프로가

되고, 누구는 아마추어로 남는 것일까?

프로는 기준이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이다. 자신과의 싸움을 게을리 하지 않는 사람을 프로라고 말한다. 아마추어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실력이 들쭉날쭉하지만, 프로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영적인 프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서 있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 영적인 프로는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이기적인 세상 한복판에서도 예수님을 바로 보여줄 수 있다. 영적인 프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다. 만들어진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영적인 프로가 된다.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아마추어가 된다.

프로야구에서 한 시즌 10승 이상 하는 에이스 투수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공격적인 피칭을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무서운 홈런타자가 등장해도 피하지 않고 가장 자신 있는 공을 던진다. 그렇게 타자를 압도한다.

신앙의 프로가 되려면 세상을 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

다. 무서워서 피하고, 더러워서 피하고, 음란해서 피해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바로 보여줄 수 없다. 그렇게 피하기만 하면 우리만의 리그가 된다. 신앙이 좁아질 수 있다. 프로야구에서 타율이 3할 이상 되는 타자들도 특징이 있다. 타석에 들어서기 전 자신이 칠 공을 노리고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공으로 유혹해도 참아낸다. 자신이 원하는 공이 오면 그 공을 쳐서 안타와 홈런을 만들어낸다.

신앙의 프로가 되려면 세상이라는 타석에 들어서기 전에 ‘나는 내 욕심과 야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다’라는 영적 노림수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왕년의 프로야구선수들은 여전히 나를 설레게 한다. 그들을 보면서 프로는 아름답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우리가 영적인 프로가 될 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을 것이다. 2016년, 영적인 프로가 되어 세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뽐내야하지 않겠는가?



주일강단

〈3면에 이어〉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바나바는 아름다운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안디옥교회가 세계선교의 중심이 되도록 성숙한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불리게 된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어떻게 했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지도자는 한 영혼, 공동체, 지역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합니다. 영적지도자에게는 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많은 선교사들의 삶을 조명할 때 기뻐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겨난 새 생명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례식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켜 보아야 합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불릴 기초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나바는 성도들에게 “주께 충성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는 격려자였습니다. 바나바는 성도들이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라고 격려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울을 데려와 성도들을 양육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25-26절).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왔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원수를 갚으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경로를 통했는지는 모르지만 다소에 있었습니다. 아마 일정기간 그곳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시 그 어떤 유대지도자들도 사울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지 않았을 때 바나바는 사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양육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지도자의 위치로 세운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태도입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으로 초청하지 않았다면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 모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지도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울을 동역자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1년 동안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함께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안디옥교회가 세계선교의 중심지로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안디옥교회처럼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주님께 충성하라”고 격려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영적성장을 위해서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입니다. 바로 이것이 안디옥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는 지도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수준을 보면 공동체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하고, 동역하기를 기뻐하는 리더십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나옵니다. 영적인 영향력은 전혀 주지 못하면서 서로 나서려고 주장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지도자는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영적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인데 세워줄 줄 모르고, 끌어내리려 하고, 질투하는 지도자들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변화될 수 있다면 초청해서 동역하고, 서로를 세워줄 줄 아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안디옥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설교를 요약하면 이렇게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통해서 흠아졌습니다. 안디옥까지 흠아졌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때 몇 사람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했습니다.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와서 함께 동역하면서 안디옥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흠어지고,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 진짜입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복음은 언어와 민족과 문화를 뛰어넘어 전해집니다. 성도들의 영적성장을 위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지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어우러져서 안디옥교회가 세계선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델이 안디옥교회입니다. 안디옥교회처럼 언어와 민족과 문화가 달라도 포용하고, 복음을 전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쓰임 받는 온누리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흠어지더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변치 않고, 어떤 민족이라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궁금한 창조과학이야기 10. 창세기와 과학문명



최승철 집사

(창조과학회 이사, 아주대 공대 신소재공학과 교수)

가인과 가인 후손들이 이룬 ‘과학문명’

진화론은 인간이 원숭이와 같은 존재에서 진화되었다고 주장한다. 또 짐승과 같은 미개한 원시인이 문화적 진화 기간을 거쳐 차츰 문명을 이루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곤 고대의 탁월한 문명을 보고 깜짝 놀란다. 미개한 인간이 어떻게 그런 건축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경은 인간이 처음부터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의 이름을 바로 지을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한 지혜와 언어능력을 갖춘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 창세기 초반에 등장하는 아담의 자손들, 특히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 같은 원시인이 아니었다. 매우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쳤다. 인류는 처음부터 농사를 지어 먹을 것을 해결했고, 양의 가죽을 이용해 입을 것을 해결했다. 성경에 동생 아벨을 죽이고 가족으로부터 도피한 가인이 성을 쌓았다고 기록되어 있다(창 4:17). 동생을 죽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가인이 성을 쌓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했다는 것이다. 가인이 흙과 돌을 이용해 성을 쌓

았다고 가정하면 상당한 축조 기술이 필요했을 것이다. 기초를 다지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수 미터 이상을 쌓아 올리려면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류 최초로 성을 쌓은 가인에게 과학적인 사고와 고도의 지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인의 건축기술이 발전해 대홍수 이후 바벨성을 쌓는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

가인의 증손자인 유발은 수금과 통소 등의 악기를 제조하고 연주하는 예술인이었다(창 4:21). 수금은 현악기이고, 통소는 관악기다. 구조가 비교적 간단한 타악기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고도의 제조기술이 필요하다. 기술뿐 아니라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는 음악성도 있어야 한다. 유발은 음악 창작의 조상이 되었다. 또 다른 아들 두발가인은 구리(청동)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기술자다(창 4:22). 구리와 주석의 광석을 숯과 함께 가열해 약 700~800℃에서 합금인 청동을 제조했을 것이다. 불을 이용해서 금속을 다루는 기술을 발견한 것이다. 그 두 성분을 잘 조합하면 다양한 성질을 가진 청동을 제조할 수 있다. 또 망치로 두드리면서 청동의 강도를 높이면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 수 있다. 성경에 표현된 날카로운 장비는 농기구

뿐 아니라 무기 제조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창 4:22). 당시 인류는 이미 단조(두들겨서 만드는 공법)와 주조(형틀에 쇳물을 부어 만드는 공법)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창세기 초반에 나타난 놀라운 건축기술, 금속가공기술, 음악 창작 등이 셋의 자손이 아닌 살인자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에게 나타난 것이 매우 흥미롭다. 셋의 후손들은 농사와 양을 치면서 살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발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나 가인은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은 음악을 통해 자신들의 두렵고 외로운 마음을 위로했을 것이다. 지금도 세상에는 마음을 감동시키는 음악이 많이 만들어진다. 그렇지만 세상 노래에는 구원이 없다. 진정한 위로는 오직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21세기 과학문명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현대 문명에서 힘들게 사는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속히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시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본당

월요치유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손정훈 목사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김국중 팀장(010-8885-6757)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정섭 팀장(010-3301-2897)

장애허공동체 누리스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모세 팀장(010-5358-3648)

야베스람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7: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전도사(010-288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20 선교관 한동을

문의: 조승찬 팀장(010-2307-5547)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본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II, 2층

캄보디아 예배 10:0 안산M센터I, 4층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II, 3층

몽골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2층

네팔 예배 11:00 안산M센터II, 4층

열방 예배 09:00/11:30 안산M센터I, 1층

태국 예배 14:30 안산M센터II, 3층

스리랑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4층

베트남 예배 14:30 안산M센터I, 3층

필리핀 예배 15:00 안산M센터I, 4층

다문화꿈방예배 11:00 안산M센터I, 3층

다문화꿈방예배 15:00 선교관 403호

다문화파워웨이브 11:00 안산 스타트리

서빙고

몽골어예배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예배 14:30 선교관 301호

네팔어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인천 몽골어예배 14:20 인천 온누리교회

평택 몽골어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00 본관 B102호

문의: 공자정 집사(010-5101-451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30~3: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목상의집(WIN) 주일예배

일시: 매 주일 10시 남한산성 목상의집

*서튼은행(010-8870-9313)

-양재역10번출구 9:00 출발(던킨도너츠)

-북정역 2번출구 9:20 출발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 오전10:30~12:30

-서튼은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CMN라파팀 의사 봉사자 모집

내용: 서빙고 온누리교회 외국인근로자 진료

일시: 매월 넷째 주일 오후 4시~6시

문의: 심형섭(010-3227-9915)

인천 온누리교회 파트간사 모집

모집: 파트간사(여)

근무일시: 화, 수, 금, 토, 일(주5일)

사역내용: 교회행정업무

문의: 목회지원실(032-437-9686)

친구들교회 개척을 위한 기도모임

일시: 1/7~3/3(매주 목, 10:30~12:00, 2/4 월)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401호

문의: 배홍일 목사(010-7145-0205),

박은실 성도(010-4554-8995)

본부 89기 두란노어머니학교

내용: 사모들을 위한 어머니학교

일시: 1/28~2/18 매주 목, 10시~15:30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을

등록: 02-2182-9114, www.mother.or.kr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사역 간사모집

모집: 찬양 인도나 건반 반주 가능자

대상: 상주가능자(숙소 지원)

제출서류: 이력서(자기소개서,졸업증명

서, 건강검진(3개월내)

사례비: 내부규정에 의한

OSOM/TP 수료자, 선교경력자 우선채용

문의: 총무(031-331-8182)

OEM한국어교실 교사(봉사자)모집

날짜: 매주 토요일 오전(제철방학 있음)

제출서류: 신앙간증문, 자기소개서

지원자격: 등록교인, 일대일 수료자

문의: korean@onnurienglish.org

온누리장로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온누리교회 장로라면 누구나

오디션: 2월 13일(토) 9시(곡목 자유)

장소: 서빙고 지하1층 성가대실

문의: 하성기 총무(010-5305-2797)

창조과학 탐사 팀원 모집

일정: 2월 17일~21일(4박5일)

탐사자: 중국 장가계, 원가계, 양가계 등

비용: 115만원

문의: 최선희 간사(02-419-6465)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0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3:0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

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 (총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 (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총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사랑홀 (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한국어)

영아부: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교육관 총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교육관 온우홀(A동 2층)

고등부: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온우홀(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오후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렘청년부예배: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최재호 전도사(010-4336-3528)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3912-939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양재 3부 예배 찬양사역팀 모집

일시: 1/31(일) 13:00

장소: 양재 비전홀B(식당 옆)

대상자: 온누리 등록교인, 세례교인

*연습시간: 주일 13~18시 / 월 20~22시

열린대담

선교,
미디어로 새롭게
날다

방송시간 : 1월 30일(토) 오후 11시

미디어 시대, **효율적 선교**를 위한
기독교 미디어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봅니다.



진행

진재혁 목사 (지구촌교회)
윤영미 아나운서 (방송인)

출연

고무송 목사 (전 기독교보 대표)
안종배 교수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이병태 부장 (SBS 보도제작부)

‘CGNTV Facebook Event’
KNOCK

SNS전용 크리스천 문화 콘텐츠
KNOCK 영상공유 이벤트

기간 : 2016. 1. 20(수) ~ 1. 27(수)

웹드라마 ‘당신의 아버지’
영상을 페이스북으로
공유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KNOCK 페이스북

www.facebook.com/cgntv.knock



웹드라마 ‘당신의 아버지’ 영상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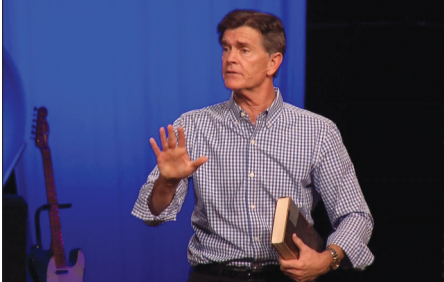
Tv 프로그램



▷ 이계호 교수의 태초먹거리
-1/28(목) 오후 8시 10분
우리의 먹거리, 환경, 생활습관 등을 점검해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 태초의
가르침에 따라 영과 육을 회복하는 시간입니
다.



▷ 지구촌 반성회
-1/29(금) 오전 11시 30분
대한민국 남자의 숙명인 '군대'에 대한 이주민
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통일과 성경속 군대
이야기까지 자유롭게 나눠보는 시간 입니
다.



▷ 칩 잉그램의 믿음
-1/29(금) 오후 4시 50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고 예수님과
의 친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삶의 지혜와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입
니다.

채널안내

IPTV

olleh G 채널237

SK Btv 채널554

LG U+ 채널183

케이블TV

cable & more C&M 채널703

CJ 헬로비전 채널702

시청문의
02-796-1118

주 | 간 | 편 | 성 | 표

1/24(주일)	1/25(월)	1/26(화)	1/27(수)	1/28(목)	1/29(금)	1/30(토)
06:50 생방송 주일예배(1부) 08: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0:30 지구촌 반성회 11:30 생방송 주일예배(3부) 13:00 생명의 삶 13:20 어린이예배 15:2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6:00 영어예배 17:20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 18:20 토크콘서트 힐링유 19:00 생방송 열린새신자예배 21:0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항기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40 하용조 목사의 마가복음강해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3:50 토크콘서트 힐링유 15:30 2015 홈 에듀케이션 컨퍼런스 16:50 전센 프랭클린의 부흥 18:50 [말씀] 이규현 목사 (수영로교회) 20:10 송병현 교수의 엑스포지멘터리 21:4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복음앞에 23:50 페리 노블의 결혼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40 [말씀] 홍정길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13:5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4:50 [말씀] 권혁빈 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6:50 [컨퍼런스] 성화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8:50 [말씀] 진재혁 목사 (지구촌교회) 20:10 2015 회복축제 〈the 기쁨〉 21:4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유집회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00 [말씀]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08: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00 온누리교회 수요여성예배 14:1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15:30 2015 추앙재단 목회강좌 16: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6:50 힐송처치 메시지 17:50 토크콘서트 힐링유 18:50 [말씀]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20:10 2015 홈 에듀케이션 컨퍼런스 23:50 데이비드 플랫의 래디컬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00 [말씀] 김창근 목사 (무학교회) 11:00 나침반 바이블 11:3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항기 13:10 [말씀] 권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 16:50 [컨퍼런스] 새 하늘과 새 땅 18:50 [말씀] 김승욱 목사 (할렐루야교회) 20:10 이계호 교수의 태초먹거리 21:40 열린새신자예배 〈특별한초대〉 22:4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23:50 존 파이퍼의 더 바이블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40 하용조 목사의 성령의 사람 10:20 [말씀]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11:30 지구촌 반성회 13:10 [말씀] 마크최 목사 (뉴욕IN2) 15:30 이기복 교수의 성경속 자녀코칭 17:20 나는야 주의 어린이 20:10 2015 추앙재단 목회강좌 21:00 2016 리더십 수련회 The One 22:40 토크콘서트 힐링유 23:50 대린 파트릭의 시도행전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00 [말씀] 조봉희 목사 (지구촌교회) 08:50 조선 프린스의 은혜 11:30 2015 회복축제 〈the 기쁨〉 13:10 [말씀] 유기성 목사 (선한목자교회) 14:50 [말씀] 김병삼 목사 (만나교회) 15:30 나침반 바이블 16:30 이계호 교수의 태초먹거리 19:00 2015 추앙재단 목회강좌 21:2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23:00 [열린대담] 선교, 미디어로 새롭게 날다

CGNTV 정기후원 [573-910002-67804 하나은행] 문의: 02-796-2243, ARS 060-700-1660
CGNTV 페이스북 (FACEBOOK.COM/CGNTV) / 트위터 (TWITTER.COM/CGNTV) www.cgntv.net

CGNTV
중보기도 모임에
초대합니다!!

- 일시: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 오후 2시~4시
-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선교관 1층 Acts29홀
- 대상: CGNTV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
- 문의: 후원관리팀 3275-9304